

중등학교의 음악 감상

김 미 숙*

차 례

I. 들어가는 말

II. 감상학습 지도안

A. 음악적 사고력을 위한 감상지도

- | | |
|------------------|--------------|
| 1. 서양음악사의 시대적 흐름 | 2. 주제 따라 부르기 |
| 3. 즉흥연주하기 | 4. 악곡형식 |
| 5. 파트 감상과 연습 | 6. 감상의 3단계 |

B. 동기 유발을 위한 감상지도

- | | |
|-------------|---------|
| 1. 대중매체의 활용 | 2. 만화영화 |
| 3. 영화음악 | 4. 민요 |
| 5. 이달의 음악가 | 6. 연주감상 |

C. 감상에서의 음악적 경험

- | | |
|--------------|----------------|
| 1. 오페라 감상 | 2. 한국 작곡가와의 대화 |
| 3. "얼마나 아나?" | 4. 현대음악과의 접촉 |
| 5. 국악기 재료 분류 | |

III. 끝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현대의 음악교육은 포괄적인 음악성의 개발과 창의력 신장에 그 목적을 둔다. 창의적인 음악 사고력의 증진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음악교육 관계자들의 끊임 없는 연구과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음악적 경험을 하게 하나이다. 음악수업은 여

* 이화여대교육대학원

러 가지 활동영역(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행 중고등학교에서의 음악활동이라 함은 가창영역에 치중된 기능 위주의 수업으로 대변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학습자료의 부재, 교육환경의 불충분, 교사들의 시간적, 물질적 여유 부족에 기인한다.

수동적이고 주입식인 나열식 지식 습득과 표현을 통한 이해는 21세기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인간을 육성할 수 없다. 능동적이고 학생중심이며 개념적 접근법을 통한 통합적 지도방법이야말로 21세기의 교육이념이라 할 수 있는 창의력 개발과 높은 사고력 신장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능동적 탐구학습의 수업형태를 취하고 개개인의 음악 미적 감수성의 개발을 위한 경험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포괄적 음악성의 개발은 저절로 성취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음악활동을 통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하겠지만 중고등학교 음악수업시에는 창작과 기악영역이 등한시되고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정과 수업내용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가창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감상영역만이 사회에서도 연장될 수 있는 음악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음악영역 중에서 가창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노래방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한국인의 특징이 모이면 노래한다고는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모임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선곡시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개정의 특징도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음악의 가치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쉽게 키워줄 수 있는 영역이 감상영역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거리에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서점이나 가게에서, 또 가정에서 의식 중이나 무의식 중이라도 음악은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4가지의 음악활동영역 중 감상만이 평생 동반자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음악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악을 생활화 하는 사람은 유쾌하고 활기찬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주역이 되며 그 사회의 수준과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평생동안 좋은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음악 문화를 향유하는 삶을 살게 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중심으로 짜임새있는 음악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하도록 하며 음악에 대한 흥미와 태도가 바람직한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생활 속에서 음악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오늘날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으로 다양한 연주형태와 연주회장이 개설되어서 누구나 음악회 참여가 용이하고 음악을 접할 기회도 많아졌다. 일상생활에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학생들이 일생동안 음악과 함께 하며 음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음악교사들은 음악감상을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감상을 통한 적극적인 학생태도와 청중으

로서의 바른태도를 갖게 해야 하며 이론적 지식 습득보다는 실질적인 참여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악적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감상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생들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현장교사들은 음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바람직한 심성을 배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까? 어떠한 감상지도가 학생들에게 음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음악을 사랑하게 만들까하는 것이 모든 음악교사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흥미를 자극하고 학습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감상활동을 실제 감상과 더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음악수업의 다양성은 재곡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악활동에 의해서 달성되므로 기존의 잘 알려진 악곡들이 감상활동에 사용되며 또한 중복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현장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가능한 많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여러 가지 수업모형이다. 본론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또 각 학년별로 교과서에 충실하며 재미있게 즐기며 수업을 할 수 있는 감상학습지도안을 제시했다.

음악수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학습효과를 세분야로 나누어서 감상지도안이 구성되었다. 음악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동기 유발을 시키며 감상을 통해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활동을 소개한 것이 본문의 주요 내용이다.

본문의 제목들을 보면 감상과 관계없이 가창, 기악, 창작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포괄적 음악 접근법에 따라서 감상활동을 하면서 다른 음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붙여진 이름들이다.

Ⅱ. 감상학습 지도안

이 장에서는 각 주제별로 사용된 시청각 기자재와 음악작품들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서 실제 수업에 사용되고 응용되어질 수 있도록 수업안을 작성해 보겠다.

A. 음악적 사고력을 위한 감상지도

음악감상을 통해서 음악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음악활동들이다. 감상을 하면서 학생들은 생각하며 듣고 스스로 음악적 사실을 발견하며 토론도 하고 판단력과 비평하는 능력을 기른다.

1. 서양음악사의 시대적 흐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양음악사는 감상곡 대신 이론만 설명되어 있고 작곡가나 악곡감상이 수반되지 않아서 음악사를 청각적으로 또한 피부로 느낄 수 없다. 서양음악사에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음악부터 오늘날의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음악을 각 시대별로 양식적 특징을 가진 곡들로 모아서 한 번에 들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음악사의 시대적 흐름을 한눈에 느끼며 동시에 각 시대의 특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깨닫게 한다.

이 수업은 학년초에 실시할 수도 있고 서양음악사를 정리하는 의미로 학년말에 실시할 수도 있다. 테이프에 녹음된 곡은 다음과 같다.

< 표 1 > 서양음악사의 시대적 흐름

작곡가	곡 목
	그레고리안 성가, 6C
	병행 오르가눔, 9C
	Estampie, 13C
마 쇼	미사, 14C
뱅시와	상송, '안녕 내사랑 여왕', 15C
데프레	모테트, 16C초
	건반악기를 위한 칸쵸나, 17C초
헨 델	오페라 '리날도', 레치타티보, 신포니아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Ab Major
브람스	교향곡 3번, F Major
R.스트라우스	4개의 마지막 노래
바르톡	현악기, 타악기와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데이비스	미친왕의 노래

한 곡씩 들려주면서 학생들 스스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게 한다. 학생들 귀에 들리는대로 느껴지는대로 발표하고 토론하게 하는데 이 때 교사는 칠판에 학생들이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적을 수도 있다.

첫번째 곡을 예를 들면 남자들의 목소리이다, 노래이다, 합창이지만 선율은 하나이다(단선율), 박자가 없는 것 같다, 리듬도 없다, 알렐루야의 가사이다, 반주가 없다 등등의 사실이 학생

들의 의견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교사는 칠판에 정리한 것을 토대로 이 곡은 현존하는 최초의 음악양식인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알아내고 찾아낸 사실이 바로 그 시대의 음악의 양식이며 특징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두번째 곡을 들으면서 첫 곡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서 듣도록 한다. 여전히 남자 목소리만 들리지만 단선율이 아니고 두성부로 나뉘어서 들린다. 교사는 이 곡이 바로 9세기말경에 시작된 다성음악의 최초의 형태인 오르가눔이라고 설명해 준다. 단선율인 기존의 그레고리안 성가 선율에 4도나 5도 간격으로 오르가눔 성부를 첨가시켰으며 시작 할 때와 끝날 때는 같은 음으로 부른다고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다.

이와같이 계속 곡을 들으면서 들리는대로 느낀 점 등을 토의하고 발견한 것들을 발표하면 된다. 위의 표의 곡들에 대해서 짧은 소개를 이제부터 하겠다.

세번째 곡은 기악곡이다. 두 개의 악기소리가 동시에 들리는데 하나는 부는 악기(관악기)이고 또 하나는 현악기이다. 악기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악기가 계속 개량이 되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학생들에게는 쉽게 관악기와 현악기로 설명하면 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신과 디오니소스신의 제사에 사용된 악기가 현악기(키타라)와 관악기(아울로스)이고 그러한 음악형태와 정신이 음악사에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로 나누어진다고 덧붙일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발견한 것을 발표한 후에 이 곡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악곡 중의 하나임을 설명하고 그 당시는 기악곡은 존재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있지 않고 성악곡만 성행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네번째 곡은 미사곡이다. 여러성부로 된 곡이다, 소프라노도 있다, 반주도 들린다, 리듬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고 학생들이 얘기한다. 교사는 이 시대는 여성이 노래를 즉 예배를 담당할 수 없으므로 어린 소년들이 제일 윗 성부인 소프라노를 담당했고 최저성부는 가사가 없으므로 악기로 연주되었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박자나 리듬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는 리듬정형이 있어서 똑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되며 세속음악보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음악이 성행했음을 인식시킨다.

다섯번째 곡은 노래이다. 이 곡에서 학생들은 여성이 노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박자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반주도 관악기와 현악기가 동시에 한다. 좀 예민한 학생이라면 가사에서 라틴어의 종교적 가사가 아니고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교사는 이것이 종교곡이 아니고 세속음악이며 옛날부터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은 공존해 왔지만 종교음악은 교회 의식에 쓰이며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세속음악은 떠돌이 음악가나 방랑시인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가사도 종교음악은 라틴어로 되어 있지만 세속음악은 그 음악가의 모국어로 되어있고 가사도 낭만적이어서 엄숙한 것보다는 세속적인 사랑, 술, 자연 등을

노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 시대의 세속음악의 한 형태인 샹송은 대부분 3성부로 되어 있고 독창자가 제일 윗성부를 노래하고 아래의 두성부를 악기가 연주한다고 덧붙인다.

여섯번째 곡은 합창곡이다. 아베마리아의 가사가 뚜렷하게 들리며 무반주이다. 무엇인가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학생들이 얘기한다. 돌림노래(캐논)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이 '모테트'의 어원은 '단어(word)'라는 뜻으로 선율에 가사를 붙인다에서 유래해서 하나의 독립된 형식인 모테트로 발전한 것이다. 그레고리안 성가의 선율에 다른 성부를 첨가하면서 처음에는 악기로 연주하다가 가사를 붙인 것이며 원선율도 많이 변형되어서 찾기는 힘들다. 대위법의 가장 쉬운 예인 돌림노래 같이 각 성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나온다.

일곱번째 곡은 기악곡으로서 오르간 곡이다. 교사는 이 곡이 17세기 초의 작품이고 1600년부터 학생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크의 시작임을 알리고 이 시대부터 성악곡 보다는 기악곡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악기도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기악곡 형식도 다양해졌음을 설명한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바하도 바로 이 시대 사람이며 그래서 그의 수 많은 기악 작품을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들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만약 바하가 이 시대에 활동하지 않고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면 그가 지금까지 유명한 작곡가로 남아있을까라는 상상도 할 수 있다. 발전을 거듭해오던 대위법이 바하에 이르러서 가장 음악적으로 꽃을 피웠다고 덧붙인다.

여덟번째 곡은 오페라이다. 교사는 바로크시대(1600)에 시작된 것이 오페라이고 바하는 기악곡에 주력한 반면 바로크의 양대 산맥인 헨델은 성악곡에 몰두해서 오페라를 포함한 많은 성악곡을 작곡했다고 설명한다. 오페라의 독창곡은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로 나눌 수도 있는데 아리아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같이 나오는 것이고 레치타티보는 건반악기가 처음만 화음으로 연주해주고 독창자가 혼자 부르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해준다. 이 오페라의 신포니아를 감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형식이 고전시대에 가서 교향곡(신포니)의 형태로 발전한 교향곡 형식의 전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사랑하는 음악장르인 교향곡이 바로 오페라의 서곡이나 간주곡의 형태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더해 줄 것이다.

아홉번째 곡은 피아노 곡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고전시대의 시작이며 이 시대에 피아노가 개량되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바로크시대의 건반악기인 하프시코드나 쳄발로는 다이내믹을 표현할 수 없었는데 이 피아노는 강약 조절이 가능해서 음악표현이 다양해졌다. 이 시대는 세사람의 작곡가(하이든, 모짜르트, 베토벤)가 두드러진 활약을 했는데 모짜르트나 베토벤의 피아노 음악은 잘 알려지고 연주되는 반면 하이든은 그것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 지므로 그의 곡을 선택했다. 과거에는 없었던 피아노가 생겨나서 피아노 음악은 커다란 성장을 보였으며 소나타 형식이 바로크시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하이든에 이르러 형식의 확립을 보게되었다. 성악곡 보다는 기악곡이 강세를 보이던 시기이다.

열번째 곡은 교향곡으로 낭만시대에 와서 가장 꽃을 피웠으며 그 시대의 대부분의 작곡가가 교향곡을 작곡했고 기악곡의 대표적인 장르라 하겠다. 이 시대는 절대음악인 고전시대와는 달리 표제음악의 시대였다. 막연한 추측보다는 제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그 곡의 의미와 분위기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음악의 이해를 돕는다.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악곡보다는 가사가 있는 성악곡이 더 용이하다. 기악곡에서조차도 표제가 붙어서 교향시 같은 형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곡은 표제가 없는 곡으로 순수하게 베토벤의 뒤를 이은 교향곡 작곡가로 알려진 브람스의 곡이다.

열한번째 곡은 성악곡인데 낭만시대는 인간의 감정 표현을 하기위해서는 가사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므로 성악곡 중에서도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인 가곡(Lied)이 유행처럼 되었다. 슈베르트나 슈만의 가곡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나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노래는 학생들에게 생소하므로 이런 좋은 작품이 있다고 소개하는 의미에서 선택하였다. 오페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스트라우스는 이 노래에도 피아노 반주가 아니고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극적 묘미를 더욱 살렸다.

열두번째 곡은 20세기 곡으로 악기의 새로운 연주기법을 시도한 바르톡의 대표작을 선정했다. 19세기말부터 대두되던 민족주의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바르톡은 자신의 조국인 헝가리의 민속선율을 음악에 도입하고 헝가리 특유의 민요리듬을 응용하여 독창성 있는 음악을 창출하였다. 현대음악에서는 악기 역할이 종래의 그것과 달라서 소음악기인 타악기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피아노가 타악기처럼 두드리고 때리는 주법을 사용하며 현악기도 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프처럼 손가락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 등의 다양한 연주법을 고안해서 사용한다. 악기배합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악기들로 앙상블을 구성하기도 한다. 바르톡의 작품은 선율과 리듬진행이 특이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며 현대음악의 독특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현재 작곡가가 생존해 있는 오늘날의 음악을 선택했다. 제목에서도 암시된 것 같이 이 곡은 노래라기 보다는 외침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추구하는 종래의 발성법과는 다르게 악을 쓰듯이(?) 절규하듯이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하고 있다. 인간의 극한 상황까지 표현하려는 작곡가의 의도가 보인다. 학생들에게 듣고 난 후의 느낌을 표현하라고 하면 이것도 음악이나라며 듣기싫어한다. 그러나 이 곡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랑 똑같은 시대를 사는 작곡가의 작품이라고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면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단성음악인 그레고리안 성가부터 성악 발성의 한계를 넘어선 성악곡까지 살펴 보았다. 선곡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지만 나름대로 각 시대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대표적인 형식과 악기 구성을 가진 음악 장르를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음악교사가 서양음악사의 흐

를 알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할 때는 이와같이 각 시대를 대표할 수 있고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곡이라면 무슨 곡을 사용해도 무관하겠다.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나온대로 매학기 차례로 음악사를 설명해도 좋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음악사를 대강 훑어보는 것도 음악사의 개관으로서 좋은 방법이며 학생들에게는 20세기 음악의 경우 큰 충격으로 남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시대가 바뀔에 따라 음악양식도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귀로 쉽게 인지할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찾아내게 한 후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사의 설명도 간략하게 또는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겠다. 위에 제시한 설명은 연구자가 임의로 간략하게 한 것이므로 교사 자신이 음악사의 공부를 곁들여서 보충하면 좋을 것이다.

2. 주제 따라 부르기

유명한 교향곡이나 협주곡, 실내악 등을 감상하면서 제시부에서 나오는 주제를 기억했다가 반복될 때 따라부른다. 주제를 스스로 찾아내게 하며 눈으로만 하는 분석이 아닌 귀로 판단하여 알아내게 하는 것은 주제 분별력 및 판단력을 기르게 한다. 감상곡 중에서 주요 주제의 선율을 외어서 부르게 하는 것은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감상을 하면서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하게 하는 것은 감상활동과 가창활동을 동시에 하는 통합적 지도 방법이 된다.

우리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유명한 교향곡이나 협주곡 또는 실내악이나 독주곡 등 어느 곡이라도 이 음악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교사는 음악을 감상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주의깊게 듣고 다 들은 후에 이 곡의 주제를 한번 불러보라고 요구한다. 먼저 감상을 한 후에 주제 따라 부르기를 하면 단순히 곡 설명과 함께 감상을 하는 것보다 지루하지 않게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1악장은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반복되므로 처음 주제가 제시될 때 들려주고 두 번째 반복될 때 볼륨을 낮추어서 들리지 않게 하며 학생들은 계속 주제를 부르게 한다. 몇 마디 후에 음량을 높여서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와 음정이 맞는지 박자가 정확하게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악과 일치했는지 맞추어 본다. 평소에 흥얼거릴 수 있는 선율이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주되는 것을 따라 부를 때는 정확히 음정과 박자가 일치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계속 이러한 활동을 하다보면 학생들의 가창력은 물론 리듬감도 키워줄 수 있다. 학생들 역시 쉽게 생각하다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재미있어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열심히 시도하게 된다.

3. 즉흥연주하기

주제가 반복되는 감상곡을 선곡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악기로 연주하게 한다. 악곡을 들으면서 주제의 대선율을 만들거나 동형진행을 시키는 등의 창작활동을 하며 사용 가능한 악기로 즉흥연주한다. 똑같은 주제를 가락이나 리듬에 변화를 주든지 조성, 박자를 바꾸어서 변주해 본다. 모든 학생들이 음악을 만들고 감상하는 즐거움을 알게 한다.

모짜르트 피아노 소나타 40번 K331은 우리 귀에 잘 알려진 곡이며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모짜르트의 변주곡을 모방해서 학생들이 쉽게 소유할 수 있는 리코더나 실로폰 등의 사용 가능한 선율악기로 주제선율에 변화를 준다. 한 학생이 주제를 연주하면 다른 학생이 자기 나름대로의 반주를 할 수 있고 리듬악기인 경우(북,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등)는 기본박을 쳐 준다든지 변형된 리듬을 재미있게(예를 들면 민요의 장단이나 재즈리듬) 연주해 주면서 흥을 돋을 수 있다. 주제의 리듬을 바꾸어서 하거나 선율진행을 바꾸어서 해보는 등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감상활동 영역만이 아닌 기악활동과 창작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소홀히 다루기 쉬운 창작영역까지 확대해서 보충할 수 있다.

4. 악곡형식

말로만, 글로만 하는 이론 수업이 아닌 음악의 특성답게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이론에서의 개념을 감상을 통해서 인지하고 파악하게 한다. 가능한한 교과서에 있는 곡을 사용해서 감상을 하면서 음악형식을 가르친다. 이 때 학생들 스스로 듣고 지적하게 한다. 학생들이 일생동안 음악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음악의 기본구조와의 친밀성을 도모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곡 중에서 음악형식과 연관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곡들을 <표 2>에 제시하였다.

< 표 2 > 악곡형식을 위한 감상곡

형 식	음 악
소나타 형식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운명' 1악장과 4악장
접 세 도 막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 '신세계' 2악장
론 도	모짜르트 : 피아노 소나타 K331, 3악장
변 주 곡	모짜르트 : 피아노 소나타 K331, 1악장

여기서는 대표적인 곡들로 한국곡만 제시했지만 음악교사들 스스로가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 곡들을 분석해서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곡들을 첨가해서 매 시간 다른 곡으로 악곡형식을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감상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다.

5. 파트 감상과 연습

파트별(하성부, 내성부, 상성부, 타악기, 대선율) 또는 악기별로 녹음을 하거나 반주부분만 녹음하여 들으면서 파트연습을 한다. 다른 악기들과의 조화와 화합을 위해 다른 파트에 귀 기울이며 연주하는 것도 음악활동에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곡 감상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며 전체연습에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파트를 들으면서 연주를 하므로 음악영역중에서 감상활동과 기악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단순히 혼자서 연주하는 것보다는 다른 연주자와의 조화된 소리를 고려하며 연주하는 것은 음악적 적응력을 기르는 훈련이 되므로 반주나 실내악등의 앙상블 연습에 효과적이다.

6. 감상의 3단계¹⁾

미국의 작곡가 코플랜드는 감상의 단계를 3가지로 분류했다.

- 1) 감각적 단계 : 음악을 감지하지만 집중하지 않는다.
- 2) 표현적 단계 : 음악이 창조하는 분위기를 파악한다.
- 3) 지적 단계 : 음악의 특정한 요소(가락, 리듬, 화성, 셈여림, 악기구성, 형식, 짜임새) 등을 듣는다.

감상 수업 전 교사는 학생들과 코플랜드의 듣기단계와 음악의 요소들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사용할 종이(감상을 적기 위한 것)를 나눠준다. 이 프로그램은 같은 곡을 네 번 듣는다는게 특징이다.

첫번째 들을 때는 감각적 단계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듣도록 한다. 듣고 난 후 곡에 대한 느낌을 적게한다.

두번째 들을 때는 표현적 단계로 곡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다음 두 질문에 답하게 한다.

- 1) 작곡가가 표현하려는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
- 2) 음악이 학생들 자신에게 주는 느낌은 어떤 것인가?

1) Kenneth Siple, "Listening Tips", 『Music Educators Journal』 March 1991, 47-48쪽

세번째 들을 때는 지적단계로 학생들에게 가락, 화성, 리듬, 셈여림, 악기구성, 형태 등에 관해 대답하게 한다. 세번째 곡을 들려준 후 학생들에게 그 곡의 작곡가와 곡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학생들은 작곡가의 의도를 자신들이 바로 전달 받았는지에 대해 짧은 평을 쓰게 하면서 네번째 음악을 듣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음악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을 통하여 좋아하는 곡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곡도 감상한다는 차원에서 듣게하여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 간단하게 실제 감상곡을 적용해보자. 학생들이 제목은 잘 몰라도 학생들의 귀에 익숙한 곡을 선정해서 위의 단계에 따라서 감상하게 한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를 들어본다. 첫 단계에서 학생들은 친숙한 선율이므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 단순히 좋은 음악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두번째로 다시 들려주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생각하면서 듣게 한다. 나의 조국을 그리면서 고향의 강을 느끼는지 연상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본다. 세번째로 들을 때는 선율의 흐름, 빠르기는 어떠한지 주선율을 어느 악기가 담당하는지 어느부분이 클라이막스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듣게 한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듣는다.

B. 동기 유발을 위한 감상지도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학습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음악감상을 할 때 먼저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감상학습안을 구성하였다.

1. 대중매체의 활용²⁾

학생들에게 동기를 주고 흥미를 갖게하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음악학습시 하고자 하는 감상활동의 제재곡으로 사용한다면 학습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광고 중에서 고전음악을 사용한 광고를 비디오로 녹화해서 보여주고 그 사용된 고전음악을 녹음테이프를 들려준다면 사전활동없이 무조건 교과서에 제시된 것을 녹음기로 틀어주는 것보다 학생들의 관심을 더 모을 수 있고 학생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96년도 상반기에 광고음악에 사용된 고전음악은 <표 3>과 같다.

2) 김미숙, "음악교육에서의 대중매체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논단」 제8집 1994년 12월, 188-191쪽

< 표 3 > 광고에 사용된 고전음악

상품명	음 악
가 방	헨델: '나를 울게 버려 두오'
보일러	모짜르트: 피아노 소나타 K331, 3악장 '터키 행진곡'
보청기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백화점	모짜르트: '피가로의 결혼' 중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세탁기	도니체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 "꽃의 이중창"
오디오	모짜르트: 라우다테 도미눔
우 유	하이든: 놀람 교향곡
이유식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의 류	바하: 관현악 조곡 제2번 b단조 중 제5곡
제 과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
커피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타이어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중 제9곡
페인트	그리그: '페르귄트 조곡' 중 "솔베이지의 노래"
필 름	비제: '카르멘' 서곡
항공사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휴대폰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이 중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제시된 감상곡(모짜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비발디의 사계, 비제의 카르멘,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바하의 관현악 조곡,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슈베르트의 송어,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 모짜르트의 오페라 등)을 선별해서 녹음테이프에 앞부분을 간략하게 녹음을 한다. 먼저 테이프를 들려줄 수도 있고 광고가 녹화된 비디오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금 녹음기에서 들려지고 있는 음악을 들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서인가 반대로 비디오를 먼저 보았을 때는 이 선전에서 나온 곡이 바로 이 곡이라든지 하며 감상곡을 소개하면 학생들은 단순히 커피 선전에 나온 음악이라든가 제과 선전에 나오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곡인 송어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과제로 오늘의 감상곡을 사용한 선전 광고를 알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 음악수업시에 게임식

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알아 맞추게 할 수도 있다. 같은 곡이라도 연주방식이 다르거나 빠르기가 변화된 광고음악은 어떤 것인지 동일한 음악이 다른 광고에도 사용되었는지 과거의 광고에도 사용되었는지 등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내게 하고 토론하게 만든다.

2. 만화영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만화는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어 마음을 설레게한다. 동물의 사육제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만화영화의 장면과 일치시켜서 녹음기로 음악을 들려주면서 만화영화를 보게한다. 음악 한가지만으로 수업을 하는 것 보다 음악의 이해를 돕고 증진시키기 위해 만화영화의 영상을 병행해서 보여준다. 이러한 이중 감각적 접근법은 학생들의 청취적 개념의 이해를 더 효과적으로 도와준다. 동물을 소재로 한 만화영화가 많아서 쉽게 비디오 테이프를 구할 수 있고 그 음악 외에도 동물의 여러 가지 동작을 특정 만화에서는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했는지 알아보고 어떤 동물에 어떤 악기가 어울리는지 토론할 수도 있다.

아래의 표는 동물의 사육제에 등장하는 동물의 동작에 맞게 만화영화를 접목시킨 것이다.

< 표 4 > 동물의 동작에 맞는 만화영화

곡 순 서	만 화 영 화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라이온 킹
수 닭	로빈 후드
당나귀	환타지아
거북이	백조공주
코끼리	환타지아
캥거루	딱다구리
수족관	환타지아
귀가 긴 동물	환타지아
빠꾸기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새 장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피아니스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화 석	환타지아
백 조	백조공주
종 곡	라이온 킹

처음 시작과 종곡은 라이온 킹' 영화에서 쉽게 장면을 찾을 수 있다. 여덟번째 곡인 귀가 긴 동물은 당나귀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날으는 말로 장면을 맞추었다. 피아니스트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서 난장이들이 백설공주와 함께 춤추고 노래부르면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으로 표현했다. 화석인 경우는 장면을 찾던 중에 지구 자체를 커다란 화석으로 생각해서 우주안에서의 지구를 보여주고 곡 중간 부분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반짝 반짝 작은별' 선율이 나오므로 그 의미와 어울리는 우주의 별들로 다음 장면을 표현했다.

정확히 부합되지는 않더라도 만화장면을 보면서 곡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연상을 시킬 수 있게만 하면 될 것이다. 처음에 소리를 제거하고 만화장면만 보여주면서 동물의 사육제의 녹음테이프를 들려주고 다음에는 음향과 함께 만화영화(original sound track)를 보여주어서 생상의 음악이 좋은지, 그 장면에 더 어울리는지, 아니면 만화영화 자체의 음악이 더 좋게 그 동물의 움직임에 적합하게 소리로 표현했는지 비교를 하게 하는 것도 학생들의 판단력과 비평력을 기르게 해서 좋은 음악감상안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사육제 음악만을 들려 주며 수업을 마무리하면 된다.

3. 영화음악

고전음악을 사용한 영화들을 모두 모아서 영화장면과 함께 음악을 들려 주면서 음악의 여러 요소 중 한가지 요소만 집중해서 듣게 한다. 리듬만 연속해서 듣던지 화성만 또는 썸머림만 고려해서 감상하게 하면 단순한 녹음기를 통한 음악의 기본요소 인지하기 보다 영화장면의 영상미로 학생의 동기를 유발시키며 청취력도 높일 수 있다.

영화 '아마데우스'의 경우 녹음테이프로 들려주는 것보다는 영화장면을 보면서 모짜르트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영화 '책 읽어 주는 여자'에서는 각 등장인물을 통해 음악을 표현했는데 특정인물이 나올 때는 그 인물에게 부여된 음악이 배경으로 나와서 음악만 들어도 누가 등장하는지 알고 등장인물만 보아도 무슨 음악이 들려지는 지를 알아서 비록 절대음악을 사용했지만 표제음악같으며 베를리오즈나 바그너의 라이트모티브를 연상하게 한다.

4. 민요

각 도의 민요들을 교사들의 이론적 설명과 함께 녹음기로 들려 주는 구태의연한 방법보다는 교사의 조금의 노력에 의해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수업하는 방법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제작하므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켜준다. 시각적 매체인 슬라

이드와 청각적 매체인 녹음기를 병행해서 오랜시간 동안 학생들을 음악감상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각 지방의 지도나 소개등을 학생들이 직접 그리거나 쓰게하며 학생들이 들고 서 있는 것을 교사가 슬라이드용 필름이 들어있는 카메라로 찍는다. 녹음테이프에는 학생중에서 방송반에 있는 학생을 선택해서 들려줄 민요들의 설명을 녹음하게 한다. 그래서 이와같이 완성된 슬라이드와 녹음테이프를 사용하면 학생들은 익숙한 친구의 목소리로 민요 설명을 들으며 시각적으로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민요 감상을 하므로 단순한 민요 감상과는 달리 지루하기 쉬운 민요감상수업을 자신들의 참여 속에서 재미있는 수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5. 이달의 음악가

매달 이달의 음악가를 선정한다. 선정방법은 학생들에 의해서 그룹별로 교사에게 전달되게 하며 선정대상은 작곡가나 연주가 모두를 포함하며 특정작품을 선정할 수도 있다. 탄생 200주년 또는 서거 100주년 등의 작곡가를 선정할 수도 있고 한국을 빛낸 음악가 예를 들면 차이코프스키 콩쿨 1위 입상자를 선정하거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등장한 성악가를 선정할 수도 있겠다.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작품이나 알고 싶은 작곡가 또는 관심있는 연주가들을 교사에게 요청하여서 들을 수도 있다.

이달의 음악가로 선정되면 한달간 학교방송에서도 그와 연관된 작품을 계속 방송하며 시각적 효과를 위해 복도의 게시판에 그와 관련된 사진이나 악보를 게재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모은다. 음악수업시에도 감상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을 가르칠 때도 기악연주나 창작활동을 할 때도 그와 관련된 음악을 사용하면 이달의 음악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연주감상

다른 학생들의 연주를 듣는 것도 감상활동의 한 부분이다.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음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도전적인 프로그램이다. 대규모의 악기로 편성된 연주 형태의 감상만 고수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고 있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의 보편적인 악기의 독주곡 감상이 드물다. 감상 후의 연주가능한 곡의 선곡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진 피아노 소나타나 쇼팽의 왈츠, 야상곡 등의 피아노 작품과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같은 바이올린 곡이나 바하의 조곡 중의 플루트 곡 등을 학생들이 직접 연

주하고 다른 학생들이 감상하는 것은 음악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으며 나도 할 수 있다 또는 나도 해보고 싶다는 등의 호기심과 자신감을 북돋울 수 있다. 학생들이 연주하는 곡을 감상하는 것은 음악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독주곡은 아니더라도 유명한 교향곡의 잘 알려진 선율을 학생들의 연주 가능한 악기로 연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을 리코더 같은 악기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오페라의 아리아나 가곡 등을 성악에 관심있고 또 성악 공부를 하는 성악가 지망생들이 직접 불러 보는 것도 녹음테이프에 의한 유명한 성악가들의 연주보다는 학생들이 더 흥미 있어 할 것 같다.

C. 감상에서의 음악적 경험

감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접해 보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말로만 듣던 것들을 시각적으로 경험하며 어떤 것은 실제의 실물(예를 들면 작곡가를 직접 만나거나 악기의 재료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 볼 수 있는 것 등)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다.

1. 오페라 감상³⁾

산업기술의 발달에서 가장 혜택을 입은 음악 분야는 감상 분야이다. 그중에서도 오페라는 비디오의 개발로 더욱 사랑받고 있다. 오페라는 음악과 극이 합쳐진 예술이므로 청각적으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극의 흐름도 보아야한다. 잘 알려진 아리아나 중창, 합창곡을 발췌해서 보여줌으로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전체 오페라를 감상하게 유도한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은 서곡부터 인상적이다.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군을 부분별로 보여주므로 관현악기론을 배울 수 있다. 1막과 3막의 간주곡에서는 목관악기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소리가 먼저 들려지고 화면에 악기 모습이 나오므로 학생들이 각 악기의 소리를 듣고 맞추고 그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악기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방식도 배울 수 있다. “투우사의 노래”와 “하바네라”는 우리 귀에 익숙한 아리아로서 쉽게 불려지는 곡이므로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해 주어서 관심을 높여준다. “세기덜리아 춤” 역시 학생들의 동기를 충분히 자극할만큼 정열적이다.

이렇게 비디오를 이용해서 오페라의 유명한 아리아나 합창들 또 중요한 장면을 모아서 감상을 한다면 학생들은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오페라의 대리경험을 한다. 성

3) 상계서, 199-202쪽.

악가들의 발성법이나 창법을 보며 학생들이 스스로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싶다 등의 자신감이나 희망을 가져 볼 수도 있겠다.

2. 한국 작곡가와와의 대화

서양음악에 또 서양작곡가의 작품에 치중된 감상시간을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작곡가의 작품 감상에 할애하기 위해서 짜여졌다. 원로나 중견 작곡가의 작품 뿐만아니라 주위의 동료 작곡가의 작품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들려주거나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창작실태나 작품경향을 소개한다. 이렇게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사용한다면 서양의 현대음악보다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는 실험정신이 강한 작곡가 심진섭의 작품을 사용하는데 작곡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뒤 음악을 들려준다. 테이프와 컴퓨터를 위한 ‘컴퓨터와 명상’은 현대음악의 한 산물인 컴퓨터음악과 구체음악을 합성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질 수 있는 소리들- 아기 울음소리,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라디오에서 들리는 노래소리, 기침소리, 한숨소리 등을 테이프에 녹음시킨 뒤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소리와 합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곡기법은 공통관습시대의 음악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새로운 충격이 될 수 있으며 소리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무슨 소리든지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모든 것이 음악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20세기의 음악에서는 음악의 재료가 다양하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서양에서 소음음악, 컴퓨터음악 등의 음악 창시자들의 작품도 있겠지만 한국 작곡가가 작곡한 음악으로 이러한 현대음악기법을 배우고 들려준다면 서양의 현대음악보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곡가 자신이 직접와서 본인의 음악을 소개하고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한다면 학생들에게는 행복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음악감상수업이 될 것이다.

3. “얼마나 아나?”

“얼마나 아나?”는 학생들이 고전음악을 얼마나 알고 있나를 감상을 통해서 알아 보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을 각 시대별로 녹음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측정해 본다. 대중음악은 몇 곡씩 기억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우고 시험도 치루었을 악곡들을 들은 적도 없는 곡처럼 여기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수업방법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태도도 변화될 것이다.

여기서는 박미영의 논문⁴⁾ 중 설문지 조사에서 사용된 음악을 사용한다.

4) 박미영, 「현행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상영역 분석과 방송매체를 이용한 감상 학습지도안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76쪽.

< 표 5 > “얼마나 아나?”에 사용된 음악

작 곡 가	곡 목
비 발 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봄"
모짜르트	피아노 소나타 K331
슈베르트	가곡 '마왕'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브 리 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헨 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베 토 벤	교향곡 제3번 '영웅'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 중 "보리수"
드 뷔 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드어'
바 하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하 이 든	트럼펫 협주곡 내림 마장조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
푸 치 니	'차니스키키' 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 르 프	카르미나 부라나

처음의 5곡은 중학교 교과서에, 여섯번째 곡부터 열번째 곡까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곡이며 나머지 다섯곡은 방송매체에 의해서 자주 접하면서 교과서에서도 제시된 곡들이다.

이 조사에서 학생들은 방송으로 자주 듣던 곡들에 대해서는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고 학생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배웠어야 하는 곡들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서 음악수업에서의 감상영역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4. 현대음악과의 접촉

진정한 의미의 현대음악은 거의 없는 교과서의 특성 때문에 학생들은 현대음악에 접해볼 기회가 없다. 현대에 태어난 작곡가가 고전양식으로 만든 작품은 현대음악으로 정의되기 힘들다. 현대음악의 특성을 살린 무조음악이나 12음기법, 전자음악 등이 소개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주 방식을 벗어난 현대음악 연주의 감상을 통해 현대연주기법의 특징과 연주방식의 다양성을 이해시켜 음악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인식되어진 현대음악을 감상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친밀감을 도모해 본다.

‘한국 작곡가와의 대화’활동과 병행해서 수업을 한다면 더 쉽게 현대음악의 특성 및 여러 기법을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이다.

5. 국악기 재료 분류

우리의 전통악기를 악기 재료에 의해 분류해서 각 악기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악기소리도 들려주고 그 악기의 재료를 직접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는 아주 독창적이며 역사 깊은 세계적인 수준의 악기이다. 단순히 악기의 모양만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는 대신에 그 악기가 무엇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어떻게 소리가 나게 되는지 설명한다면 더 쉽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음악이 이해될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악기 재질을 실감나게 하며 각 악기가 가지는 특징을 파악한다.

< 표 6 > 국악기 재료와 국악기

종류	재 료	악 기
금	쇠붙이	편종, 특종, 징, 방향, 나발
석	돌	편경, 특경
사	명주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죽	대나무	피리, 대금, 단소
포	바가지	생황
토	흙	훈, 부
혁	가죽	장고, 좌고
목	나무	박, 축, 어

악기 만드는 재료에 의한 악기구분법으로 위의 <표 6>을 만들었는데 종류는 한문으로 축약되어서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재료난에서 쉽게 풀어서 적었다. 학생들에게는 실제로 악기재료를 조금씩 병에 담아서 보여주고 그 재료에 의해 만들어진 악기의 모습이 들어있는 사진이나 플래쉬 카드 또는 슬라이드나 OHP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악기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면 말로 설명하며 악기소리를 감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며 흥미있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 재료를 보여주면서 악기그림과 악기소리를 별도로 보여주는 것도 좋고 비디오로 제작하거나 구할 수 있다면 악기 연주법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기억하기가 더 용이하겠다.

Ⅲ. 끝맺는 말

이상과 같이 음악감상활동의 여러 가지 수업방안을 살펴보았다. 여기 소개된 것들은 직접 개발한 것도 있고 현역 교사가 사용 중인 것도 있으며 외국에서 실험 연구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 학습지도안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학교의 사정에 따라 또한 음악교사들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서 변화되고 응용되어 질 수 있다.

한 조사⁵⁾에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매체는 녹음기이고 가장 좋아하는 매체는 비디오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음악교사가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매체는 녹음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의 음악교육 현장은 열악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태도의 함양과 배움의 본질적인 기쁨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 내용과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음악적 수준과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음악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손쉬운 음악수업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

중등학교 현장의 음악교사들은 학습 진행 속도와 방법에 변화를 주며 융통성있는 시간계획을 활용해야하며 시청각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한 교수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하며 학생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알맞는 매체를 선정하고 적절한 내용을 제시해 주어야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음악감상을 할까는 음악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학생 개개인의 음악성 발달 및 창의성 신장 뿐만아니라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는 인간교육의 임무는 우리 음악교육 관계자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며 현장교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음악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수업의 방법과 내용을 구성하고 과학화 및 현대화에 따른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재개발에 힘써야 하겠다.

5) 김유림, 「음악교육에 있어서 시청각 매체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63-66쪽.

참 고 문 헌

- 김미숙, "음악교육에서의 대중매체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논단』 제8집 1994년 12월, 183-207쪽
- 김유림, 「음악교육에 있어서 시청각 매체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박미영, 「현행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상 영역 분석과 방송매체를 이용한 감상 학습 지도안 개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Sipley, Kenneth. "Listening Tips," 『Music Educators Journal』 March 1991. 47-50쪽

ABSTRACT

Music appreciation in secondary schools

Mi-Sook Kim

This study is to introduce various music appreciation activities with actual listening for maximizing learning effect and stimulating students' motivation and interests. The variety of music class is achieved not by music repertoire, but by music activities. Thus, well-known music is used for music appreciation activity continuously.

One of the most essential tools for music teachers is a variety of lesson plans in detail as much as possible. In this study, the music appreciation teaching models in various approaches and in school levels are suggested so that make able to study with joy and interest.

The various music activities are presented to improve the musical thinking, to stimulate the student's motivation, and to have musical experiences through the music appreciation. The subjects of music appreciation activities are as follows:

A. Musical Thinking - 1. Historical reviews of western music ; 2. Sing a theme ; 3. Improvisation ; 4. Form and style ; 5. Listening parts and play ; 6. Three levels in appreciation.

B. Stimulating motivation - 1. The usage of mass media ; 2. Cartoon ; 3. Original sound track ; 4. Folk song ; 5. Musician in this month ; 6. Performance appreciation.

C. Musical Experiences - 1. Appreciation of opera ; 2. Conversation with Korean composer ; 3. "How much do you know?" ; 4. Approach to contemporary music ; 5. Materials of Korean instruments.

How to listen to the music easily and interestingly depends on the music teacher. With the financial aids from school, the music teacher needs devoted efforts on the development of creative, efficient materials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in students.